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철 편집국장 : 이종국

여름계절학교 막올라

6월 6일 사랑부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금년에는 교역자 성지연수 등 해외사역도 부쩍늘어

'95 예수사랑 큰잔치가 마쳐지면서 교회학교 각 부서는 여름계절학교 준비로 분비고 있다. 여름계절학교 개강기간이 바짝 다가오면서 한층 바쁜 모습들이다. 금년에는 특별히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는 교역자 성지연수 등을 비롯해서 대학부, 청년1부의 해외 단기선교 및 선교여행 등 해외사역도 부쩍 늘어났다.

여름계절학교는 특별 신앙훈련과 함께 보충 교육의 의미가 다분히 있기에 잘 활동하면 교회학교 운영과 발전, 각 개인의 신앙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여름계절학교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연초부터 장소와 강사를 섭외하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를 통해 드러난 각 부서의 입장들을 고려하여 계절학교를 통해 보완할 점을 보완하고 강조한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교육을 위한 하나의 이정

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년 여름에는 교역자들의 성지연수가 1, 2차에 걸쳐 실시되고 대학부가 경남 김해, 마산, 창원 지역에 순회전도를 실시하고 해외단기 선교 및 사역 등이 특징으로 보인다. 금년도 여름계절학교는 사랑부가 이미 지난 6월 6일에 실시함으로써 시작하여 8월 17일에 끝나는 청년1부의 여름수련회를 끝으로 모두 끝나치게 된다. 예년과 같이 초등5부까지는 교회당에서, 초등6부부터는 충현기도원을 이용하게 된다.

지난 주에는 대학부가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때입니다' (행 1:8)라는 주제하에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경남 김해, 마산, 창원 지역에서 주로 노방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펼쳤다. 예상인원을 훨씬 넘어선 3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장년2부·소망부 수련회 7월 3(월), 4(화)에

금주에는 7월 3, 4일에 장년2부와 소망부가 각각 수련회를 갖는다.

장년2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하에 수원, 합동신학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장년2부 수련회는 장년2부 지도인 윤영탁 목사와 총신대학원 교회사 교수인 심창섭 목사가 강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공동체'라는 주제에 맞추어 특강 및 부흥회를 갖게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와 목

적 등을 배우게 된다.

또한 소망부는 교회 칼릴리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 43:19) 이란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인다. 강사는 소망부 지도인 김찬곤 목사와 예배위원회 지도인 이종대 목사이다.

국민학교부는 주로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직후인 7월 24-26일에 교회당에서 모이게 된다.

또한 교역자 성지연수는 1차가 6월 26일에 출발하고 2차는 8월 21일에 출발하여 각각 12박 13일간 연수하게 된다. 각 부 여름계절학교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교회학교 교사단기수련회

7월 12일(수), 13일(목) 오후 7~9시

'교회학교 학생의 상담'이란 주제로 오는 7월 12일(수), 13일(목) 오후 7~9시에 교사단기수련회를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교회학교 교육에 필요한 상담원리를 배워 교회학교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회학교 학생의 상담'이란 주제하에 교사단기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7월 12-13일, 오후 7~9시에 실시될 단기수련회는 정광욱, 김희수 목사와 현

대교회의 임승원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게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교사들이 상담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적인 상담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과 개인적인 상담이 활발히 일어나 학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상담에 대한 이해들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시간계획은 아래와 같다.

	1교시 오후 7:00-8:00	2교시 오후 8:00-9:00
7.12(수)	수요 배부 예배 <정광욱 목사>	주일학교 상담 원리 <김희수 목사>
7.13(목)	주일학교 상담 이론과 실제 <임승원 목사(현대교회)>	

오늘은 맥추감사절 다음 주일에 성찬식

7월 7일(금)에는 세례식

교회는 오늘을 맥추감사절로 지낸다. I 부예배는 이한수 목사가 '과거를 추억해 보라' (학 2:10-19)는 제목으로, II부와 IV부예배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시 4:5-8)이라는 제목으로, III부예배는 김창원 원로목사가 '맥추

절을 맞이하며' (갈 6:6-10)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대 예배제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며 맥추감사절을 지킨다.

금년 들어 네번째 시행하는 세례식 및 성찬식이 오는 7월 7일(금)과 7월 9일(주일)에 실시된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오는 7월 6일(목) 오후 7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예제교육 및 문답을 받고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은 7월 7일(금) 오후 7시 칼릴리홀에서 세례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

7월 4일(화)부터 7월 7일(금)까지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 오는 7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200여명을 초청하여 숙식을 제공하며 열리는 본 세미나는 '농어촌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주제하에 열리는데 제1부부흥회, 오전 특강, 오후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되며 레크리에이션과 특별 휴식시간 등을 배정하여 영육간에 휴식과 재충전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강사는 김창원 원로 목사, 당회장 신성종 목사 외에 가나안농공학교 교장 김범일 장로 등 8명이 담당한다.

주요 교육훈련 내용 및 강사는 아래와 같다.

- 농어촌 목회자의 사명과 영성훈련
신성종 목사(충현교회 담임목사)
- 부흥회
주강사 김경원 목사(서현교회 담임목사)
- 세계화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
정용갑 목사(전주제자교회 담임목사)
-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협력관계
정용갑 목사(전주제자교회 담임목사)
- 농어촌의 현실과 비전
김범일 장로(가나안농공학교 교장)
- 21세기의 새로운 전도전략
정광우 목사(경산중앙교회 담임목사)
-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길
노재석 목사(전안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총헌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42 ●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 (1)

(계 20:1-6)

요한계시록 20, 21,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으로 이 부분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와 신천신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사탄을 어떻게 결박시키느냐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내용과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탄의 결박은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이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 사탄의 결박

(1) 무저갱과 지옥

2, 3절을 보면 사탄을 잡아 결박시켜서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다고 했는데 '무저갱'은 '끝없는 깊은 수렁'을 뜻합니다. 이 무저갱은 사탄마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재림 때까지 갇혀 있는, 말하자면 사탄마귀를 가둬 두는 지하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사탄마귀가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탄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면서 그때에 밧지 않는 자들이 함께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의 구조가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동안 놓이리라"고 했습니다.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 사탄마귀가 나오게 될 그때에 지상에서는 큰 환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가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2) 용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서 던져 잠그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옛뱀이라고 한 것은 지금의 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 그것이 바로 사탄마귀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말로 사단이라 음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사탄입니다. 이 사탄, 곧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던져넣고 쇠사슬로 묶어 결박하고는 그 문을 아무도 열 수 없게 인봉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천 년 동안인데 천 년이 지난 다음에는 잠깐 놓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지만 마치 묶어 놓은 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있는데 그 한계 안에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

리다가 마지막 7년 대환난이 될 때에 잠깐동안 놓이게 되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게하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3절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했는데 이 사탄마귀가 하는 일이 미혹하는 것, 즉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3) 천년왕국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설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전(前)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반칼빈주의적인 그런 학설인데 1825년 영국의 다아비(John N. Darbey)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일리가 있는 학설로 본문 4-6절을 주님의 재림 후에 지상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단순한 학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로 후천년설은 전천년설과 정반대입니다. 즉 천년 왕국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여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세상은 점점 황금의 시대가 오고,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견해입니다. 점점이 세계가 기독교화 한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도 모순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도저히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학설입니다.

셋째로 무천년설인데 이 학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뵈트너 같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학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통해서 많이 보급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장로교회를 세운 칼빈 같은 사람들도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취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신앙도 중요하고 부활신앙도 중요하고 재림신앙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리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무천년설주의가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사실 무천년설주의도 아니고, 전천년설주의도 아니고, 후천년설주의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구요? 성경에 보니까 천 년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천년왕국설을 주장할 뿐입니다. 다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나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해석을 따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2. 성도들의 왕노릇

(1)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의 뜻

첫째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거기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또 셋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첫째 부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때에 먼저 의인들, 즉 믿는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백보좌심판이 있을 때에 악인들,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2) 왕노릇할 장소

왕노릇할 장소는 성경에 보면 보좌가 있는 곳, 순교자들이 있는 곳,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보좌가 있는 곳이고, 순교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3) 이 영광에 참여할 자

첫째는 순교자들입니다. 4절 중간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즉 순교자들입니다. 두번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모든 성도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즉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영광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4) 우리는 어떤 형태로 영광에 참여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영으로 하늘 시온산 보좌에 앉아계실 것입니다(히 12:22).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시온산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체로서 계실 것입니다(계 14:1). 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 영체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계 11:12).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 부활 할 때와 같은 그런 몸으로 전부 다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성도들은 천년 동안 지상에서 영혼과 육체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사 6:13).

(5) 심판의 기준

먼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롬 2:12-13). 신약시대에는 복음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롬 2:16). 그러면 율법도 복음도 못들은 사람은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심으로 심판 합니다(롬 2:14,15).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신앙도 중요하고 부활신앙도 중요하고 재림신앙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아무도 "산아 날 가리워라, 바다야 날 가리워라"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름에 권해 드리는 한 권의 책

당신의 기도생활을 깊고 풍성하게 하는
가장 영적이고 감동적인 책

기도

국판
184쪽
3500원
성령의말씀사

오 할레스비 저

1. 저자에 대하여 / 오 할레스비는 노르웨이의 훌륭한 그리스도인 교사이자 경건서적 저자로서 196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오슬로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2. 저자 서문에서 / 내가 쓴 책 중에서 이 책만큼 쓰고 싶은 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만큼 쓰기를 두려워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며 기도였습니다.

3. 필자는 /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서 극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하였고 재림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 고백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라도 한 가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앞에 엎드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중요한 내용

제1장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들이는 일입니다(계 3:20).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끔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주님은 거절당하는 곳이 아니면 어디나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조용히 들어와서 폐 안에서 그 기능을 다 하듯이 예수께서 우리 심령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거기서 그의 복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기 전에 이미 영혼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말이 우리 입술 밖으로 나온 후에도 영혼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도로 하나님

께 드리는 호소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마음의 태도 즉 영적 상태



는 무력함과 믿음입니다.

(1) 무력함 : 기도는 무력한 자에게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력한 자의 마지막 의지하는 수단입니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용히 정독해 보십시오. 기도를 연결처럼 하는 분들은 기도의 기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크든 작든 기도는 호소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력함 때문에 염려하거나 기도를 그치지 마십시오. 무력함이야말로 기도의 참 비결이며 추진력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무력감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고 그의 풍성한 은혜와 공물을 따라 우리의 괴로움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게 함은 우리가 무력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겸손케 하시며 우리 마음을 통회케 하실 때(사 57:15), 그리고 우리의 자만과 자기 만족을 산산히 부숴 버리실 때 이때가 참으로 깊은 기도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회

임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2) 믿음 : 우리가 무력함 중에서 예수님께 향할 때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력함은 당신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당신의 궁핍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순간에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선 이 이상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심이나 약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한가를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제2장 기도의 어려움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대로 하시도록 명령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기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문제와 연약함, 믿음 없음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는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장 기도는 일이다
제4장 기도의 싸움I
제5장 기도의 싸움II
제6장 기도의 오용
제7장 기도의 의미
제8장 기도의 형태
제9장 기도의 문제들
제10장 기도학교
제11장 기도의 영

제1장을 요약한 내용을 보고서도 제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싶어 참기 어려운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문, TV는 보면서 이 책 '기도'를 읽지 않는지요? 정독하며 메모하여 자주 보면서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성숙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실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픈 열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종 대

(목사, 예배위원회, 제2교구 지도)

사과 속의 씨앗이 몇 개인지는 헤아릴 수 있지만

누구든지 사과 속의 씨앗이 몇 개인지는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몇 개의 사과가 들었는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이야 쪼개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씨앗을 심으면 장차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풍년을 맞이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무릇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연약하게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사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생애를 맡아주시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매일의 생활에서 벗어나와 한번 대자연에 발을 디디고 보십시오. 답답했던 가슴도 하늘만큼 넓어지고, 속에 걸려 있던 근심 걱정들이 다 씻어질 것입니다. 통펠로우의 '인생 찬미가'에 나오는 식귀처럼 무덤이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은 영원한 삶(永生)이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이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맥추감사절에 부치는 시

감사할 줄 아는 감사

태양이 버린
따가운 칠월의 빛은
바람과 함께
밀 보리 일렁이는 계절

성령이 강림하는 맥추감사절이면
칠월의 초록은 향기로 짙고
추수때가 되면
농부의 값진 땀방울은

감사의 알곡으로 익어간다

거짓없이 주어진 흘린 땀
믿음의 추수할 때면
감사할 줄 아는 감사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앞 뒤 옆만 볼 줄 아는 인간
위는 생각지 못하는 미련
숨김없이 바칠 수 있는 양심
죄의 열매를 떨리하고
어리석지도 인색지도 게으르지 않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일 년 중 여섯 달의 첫수확
마음의 도적질 말고
제일 먼저 높고 높은 하나님께
향내나는 예물바치게 하소서

정성껏 바치는 맥추감사절
성령이여 호소서 오시옵소서

김운철
(집사, 초등3부 교사)

터어키에서 태권도 사범 평신도선교사 찾고있어

태권도 사범으로서 터어키에 평신도 선교사(비용은 현지에서 부담함)로 나갈 성도를 찾고 있다. 관심있는 성도는 기획실로 연락하면 된다.

(☎ 552-8200, 교 430, 431)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참된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경비직 : 남 0명
- 미화직 : 남 0명
- (40~50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도)
- 자격 및 제출서류 :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직원 복무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교 402)

충현선교연구원 선교지 단기훈련자 예비 모임

충현선교연구원은 1995년도 필리핀 단기선교사역을 오는 8월 15~23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갖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선교지 단기훈련에 입각한 준비교육 및 예비교육을 위해 준비 모임을 갖는다.

· 일시 : 오늘(7월 2일) 저녁 찬양에 배후

· 장소 : 베다니홀

· 참석대상 : 강철형, 공향조, 김영달, 이복희, 이정률, 김춘권, 고부자, 이민자, 배철만, 이미숙, 명혜영, 신수열, 김계화, 조현아, 주영희, 김인숙, 장의순, 이성섭, 조우숙(이상 19명)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 참가단 모임

7월 6일(목), 저녁에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에 참가할 참가단의 예비 모임이 오는 7월 6일(목) 오후 6시부터 만나홀에서 식사를 한 후 오후 7시부터 교육관 109호실에서 모입니다. 해당자는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7/3(월) 분당중앙교회 이웃사랑 전도집회 설교,
7/7(금)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종강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 : 7/4(화)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개강예배 설교 및 강의,
7/5(수) 연대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자 세미나 강의
2.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교역자 성지연수(1차 : 6월 26일 ~ 7월 8일, 2차 : 8월 21일 ~ 9월 2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단 김영대 선교사

‘어려운 곳일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

그래도 제일 기쁜 것은 교회에서 소식이 올 때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선교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확실하게 강화할 때입니다. 이곳 환경과 싸우느라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5:30)에도 뜨거운 태양이 검은 대륙에 떠오릅니다. 첫날 밤중에 전기공급이 끊어져서 밖으로 침대를 옮겨 놓고 잠을 자는데 모기의 극성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기후가 건조해서인지 아이들이 코피를 흘렸습니다. 곧 회복되어 적응하리라 믿습니다. 1. 주택문제 2. 차량구입 3. 학교등록 4. VISA 연기 등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하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시 119:129). 수단 선교지의 자연적인 환경,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겨우 극복한 것 같습니다.

1. 언어훈련 및 VISA

Khartoum 대학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8월에 새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개인교수와 사설학원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온비와 영화는 5월 15일부터 Summer School에 다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번 답사 때에 반에는 아랍어 언어연수원 입학해가서로 VISA를 연장했습니다. 학생비자 96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2. 수단한인교회 사역

집사님 다섯분, 대사님 네외분을 포함 중고등학생 6명 포함해서 28명 정도가 회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수단 공휴일) 오후 5시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니다. 특별히 교회 자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배당은 예전에 대우에서 건물을 짓느라고 숙소(일꾼들)를 지었는데 그것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주택 및 자동차

카르툼도시 전역에 전기사정이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전 도시가 하루에 12시간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외국인들과 수단의 부유한 자들은 6월, 7월을 외국으로 휴가를 보내러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고 전기사정이 아주 안좋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발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단에는 영구적인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광대한 영토의 수단에서는 빈약한 교통 체계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영토가 점점 사막화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낮 최고 기온이 50°C까지 올라가며 겨울에는 40°C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Grace 선교사(WBT 소속, 중국계 싱가포르인)에게 한 두달간 머물면서 집을 구해기로 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수단 원주민 교회

아직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단 장로교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분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접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문제도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5. 기타사항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인 수단은 친절하고 국민들의 환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북부 아랍족과 남부 아프리카 흑인 사이의 고질적인 긴장관계는 오랜 동안의 지독한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단은 국교인 이슬람교와 더불어 크리스티교와 애니미즘(영혼숭배) 신앙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투라비’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의 배후 조정으로 더욱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외교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외교관계가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케냐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복음활동은 음으로 양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지난 40년간 있었는데 1985년 이후에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적인 시도가 극에 달해 주일 예배시에 폭탄을 던지고 교회와 기독교인이 있는 마을을 파괴하며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는 대량학살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를 죽이고 카르툼 근처의 사막지역으로 추방당한 난민들이 개종하면 식량을 주겠다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음사역 형태는 교회중심으로 하는 지도자 훈련,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선교단체의 강의 중심모임(Conference), 가난한 마을 중심으로 한 진료사역(약 공급 및 진찰정도) 및 교회사역 그리고 재배를 중심으로하는 유치원 사역이 있습니다.(모슬렘들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필 것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온 교우들을 중심한 충현교회의 역사적 행보가 어떻게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세계화’를 계기로 급속도로 변화되는 듯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기쁜 것은 교회에서 소식이 올 때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선교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확실하게 강화할 때입니다. 이곳 환경과 싸우느라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곳일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에 진한 공감과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단에서

김영대 선교사 드림